

2024 층간소음 관련 인식 조사

TK_202401_TR_1895



I. Research Overview

II. Research Summary

III. Research Finding

Contents

1. 평소 '소음' 관련 민감도
2. 이웃의 생활 패턴 및 소음 발생 관련 인식
3. 층간소음 유형별 수용도
4. 現 거주 주택 층간소음 발생 빈도
 - 4-1. 現 거주 주택 층간소음 발생 상황
 - 4-2. 층간소음이 일상에 미치는 영향력
 - 4-3. 층간소음 발생 시 상황 및 감정
 - 4-4. 층간소음 발생 시 대처 방법
5. 층간소음 발생 방지 노력 정도
6. 층간소음으로 인한 항의/민원을 받은 경험
 - 6-1. 층간소음으로 인한 항의/민원을 받았을 때 상황 및 감정
7. 층간소음 발생의 근본적 원인
8. 층간소음 문제 심각성 및 해결 방안 관련 인식
 - 1) 2022년 VS 2024년 연도별 비교
 - 2) 연령별
 - 3) 거주주택 유형별
 - 4) 층간 소음 경험별

01

Research Overview

- 조사 설계
- 응답자 특성



1. 조사 설계

조사 방법

On-line 조사

조사 대상

아파트/빌라 등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전국 만 19~59세 성인 남녀

표본 추출 방법

목적적 할당표본 추출법 (Purposive Quota sampling)

표본 크기

총 1,00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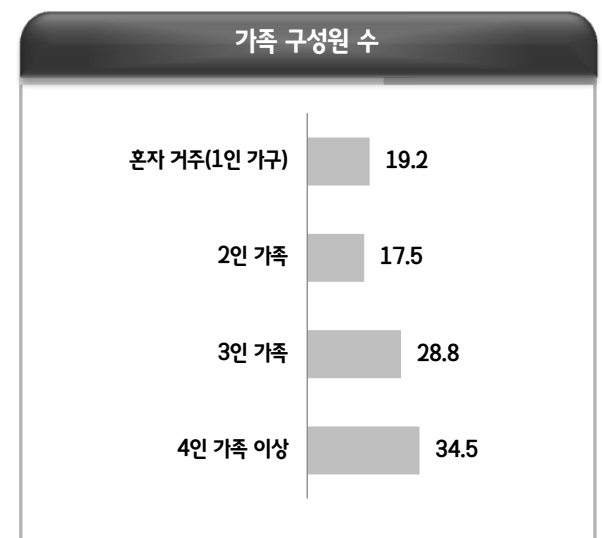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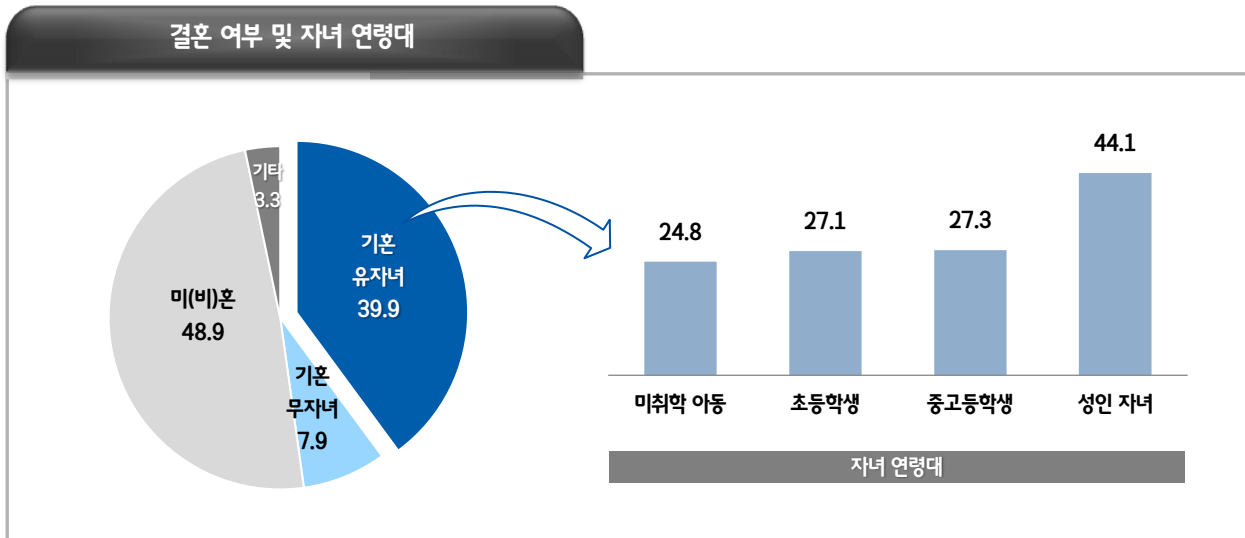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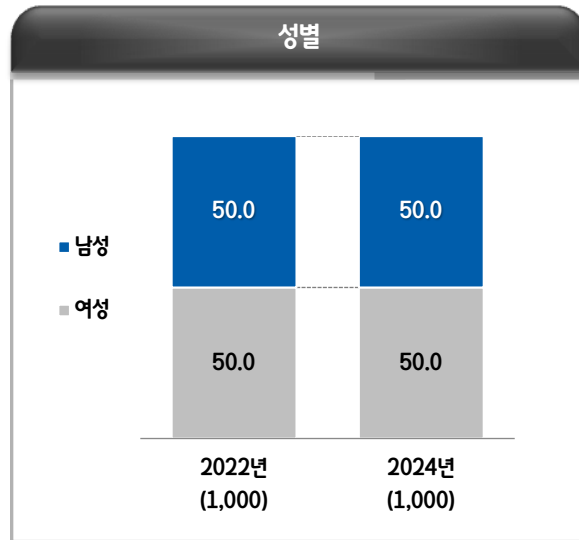
	20대	30대	40대	50대	TOTAL
남	125	125	125	125	500
여	125	125	125	125	500
TOTAL	250	250	250	250	1,000

조사 기간

2024년 1월 10일 ~ 2024년 1월 12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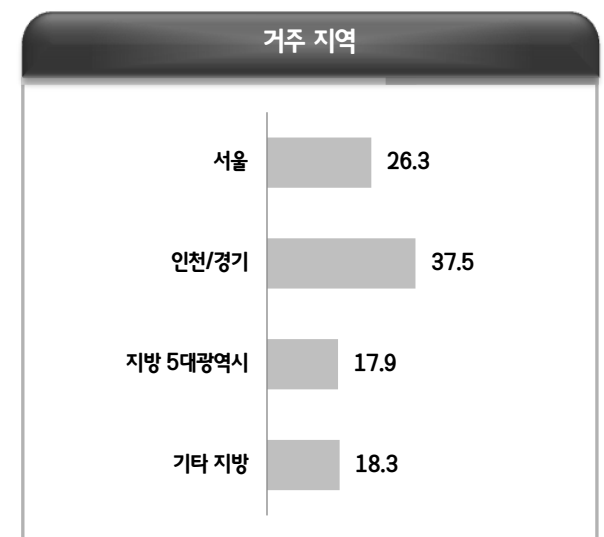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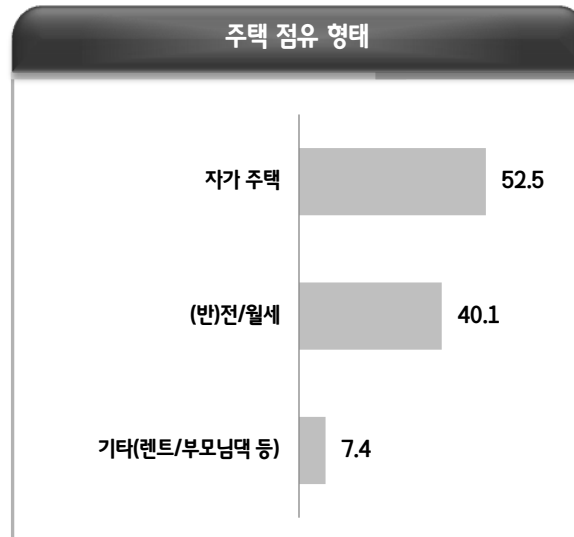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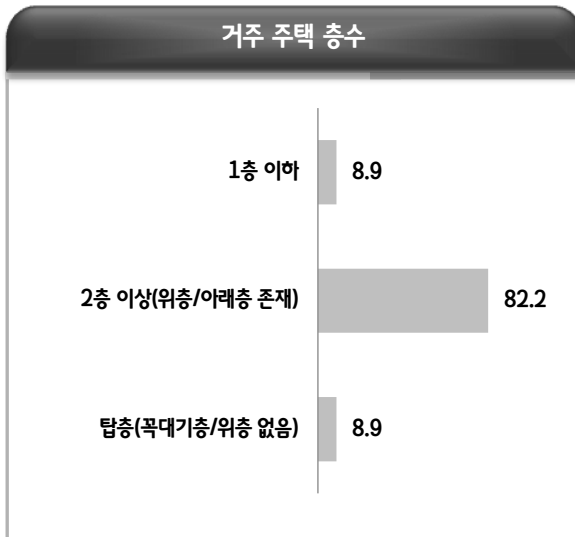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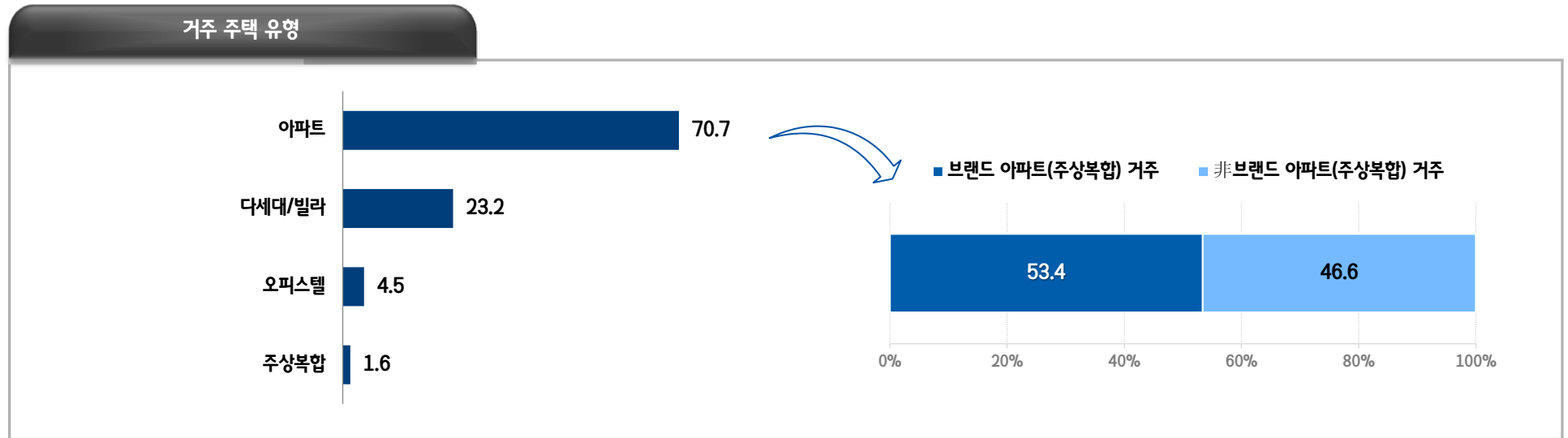
2. 응답자 특성(1/2)

(Base: 전체, N=1,000, 단위: %)



2. 응답자 특성(2/2)

(Base: 전체, N=1,000, 단위: %)



02

Research Summary



1. 층간소음 유형별 수용도

- 층간소음 중 가장 문제가 되는 소리는 [발소리], [아이들이 내는 소리], [망치질 등의 소리] 등 쿵쿵거리는 소리라는 응답이 많았음
- 대체로 [급배수 소리], [문소리], [물건이 떨어지는 소리] 등 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음에 대한 이해도는 비교적 긍정적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었음
- 전반적으로 '공동주택' 거주 시 생활소음에 대한 이해도는 높게 평가되고 있었으나, 지속적 소음에 대해서는 화가 날 것 같다는 응답이 많은 편임

(N=1,000, 단위: 중복 %)

(단위: 동의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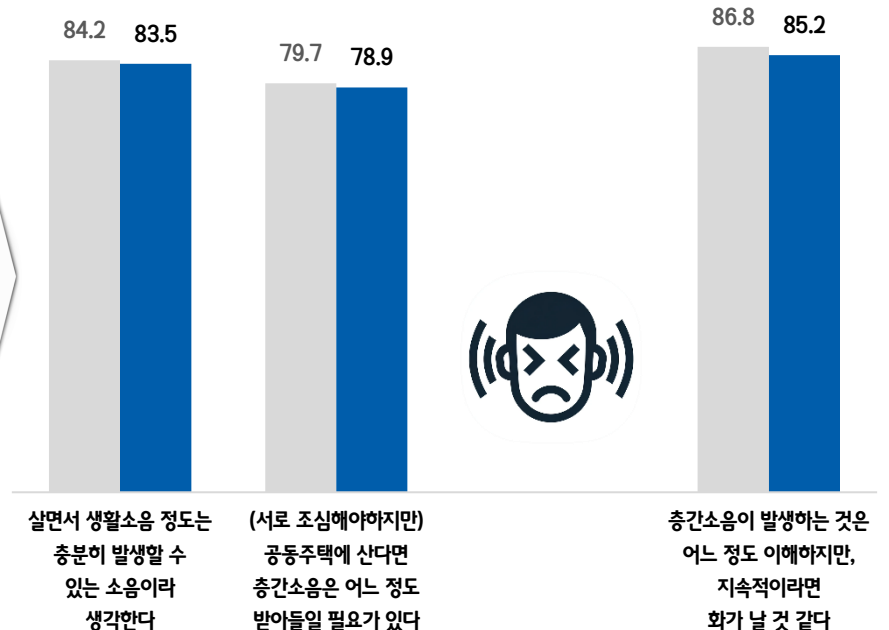


가장 문제가 되는 '층간소음' 유형

건거나 뛰는 발소리	아이들이 내는 (뛰는 등) 소리	망치질 등으로 나는 소리	크게 대화하거나 언쟁하는 소리	무거운 물건을 옮기는 소리
57.3%	49.5%	35.9%	28.2%	28.1%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층간소음' 유형

급배수 소리 (샤워 등)	문을 여닫는 소리	물건이 떨어지는 소리	가전 제품 (세탁기 등) 소리	요리를 할 때 나는 소리
46.2%	40.1%	35.7%	33.6%	2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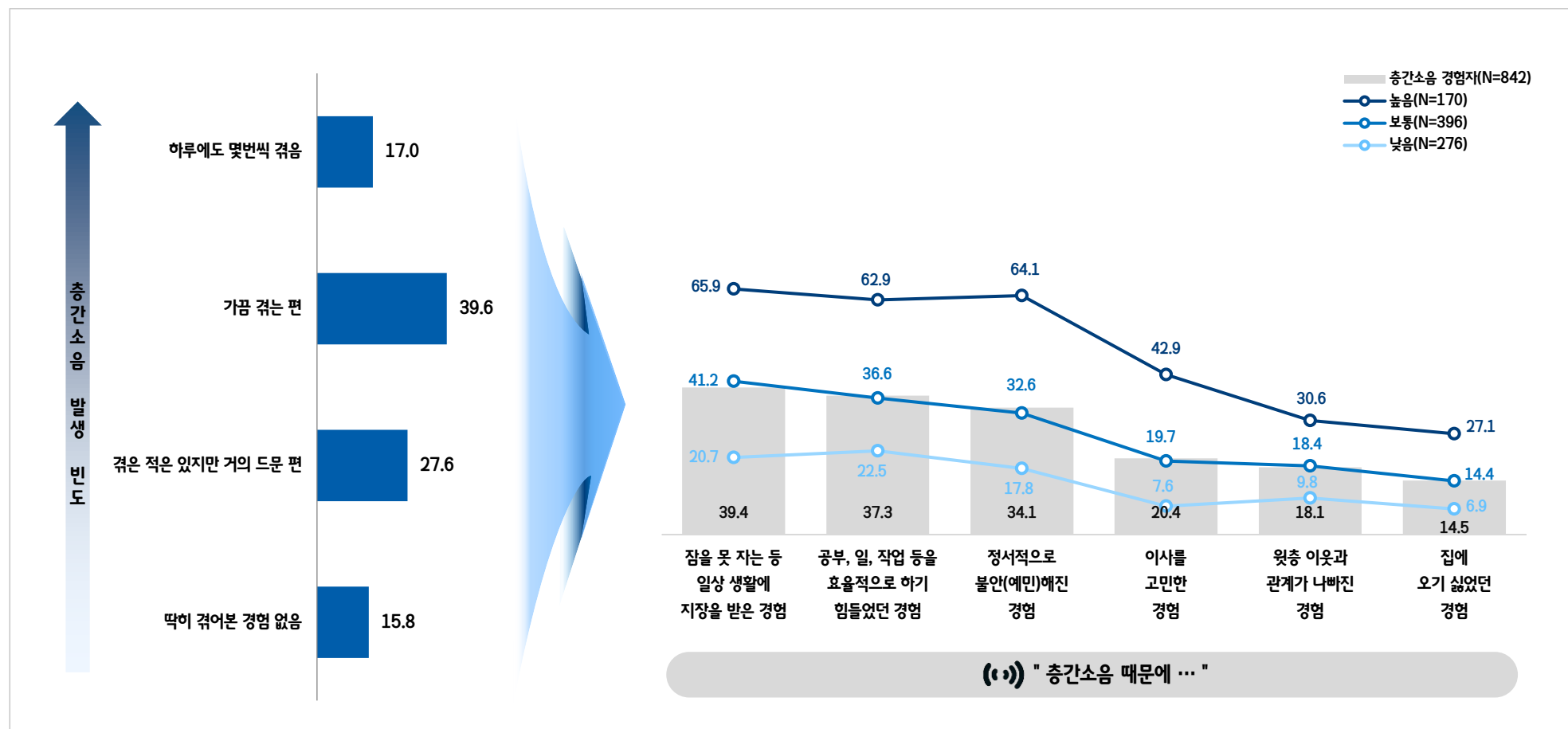


2. 現 거주 주택 층간소음 발생 빈도 및 일상 영향력

- 현재 거주 주택에서 층간소음을 겪은 경우는 많은 편이지만, 발생 빈도는 잦지 않은 편임
- 층간소음 발생 빈도가 높을수록 정서적 불안감 등 스트레스가 크고, 이웃과의 관계가 악화되는 등 부정적 영향이 큰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음

(N=1,000, 단위: %)

(Base: 층간소음 경험자, 단위: 동의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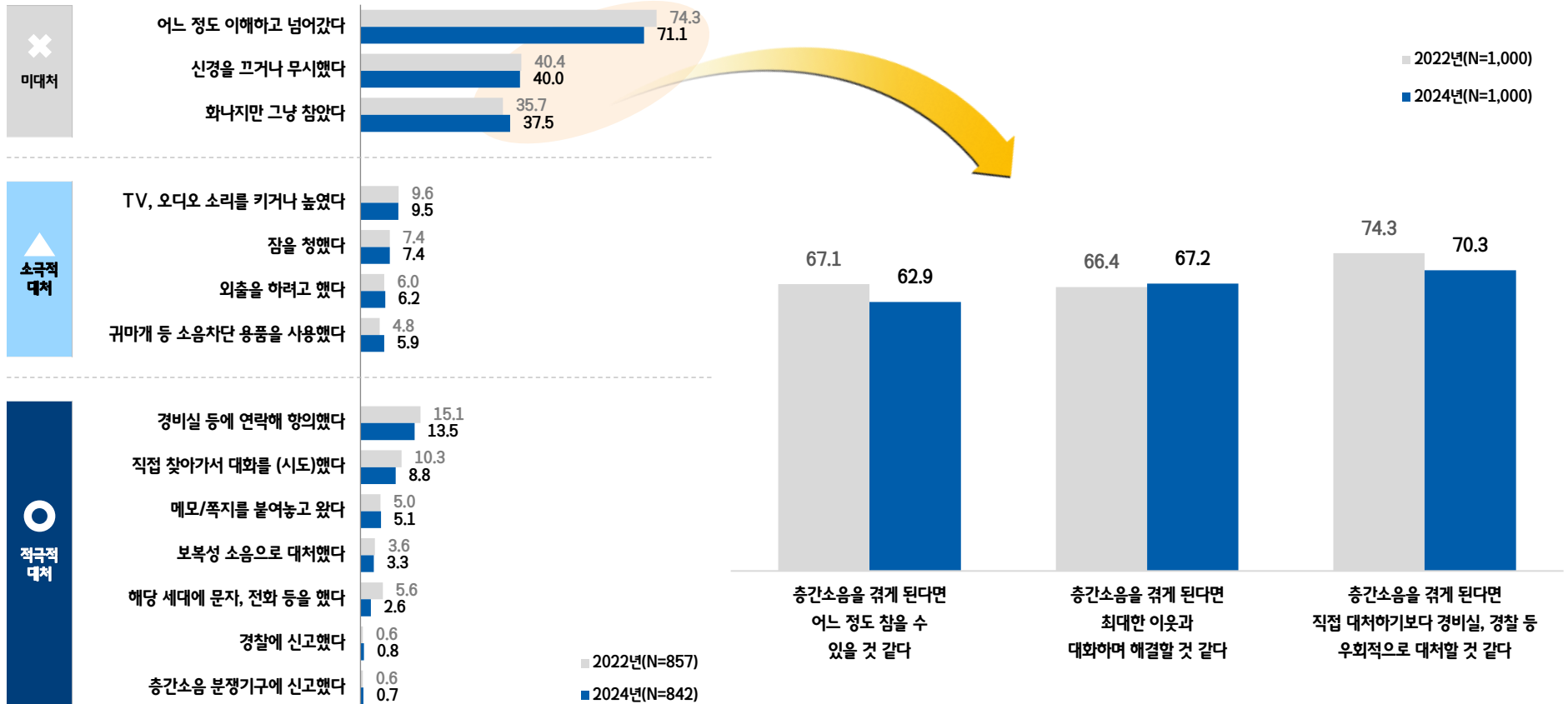


3. 층간소음 발생 시 대처 방법

- 층간소음을 겪더라도 적극적으로 '항의'하거나 '신고'하는 등의 방식보다는 '이해'하거나 '무시'했다는 응답이 많은 편임
- 앞으로도 층간소음이 발생했을 때 '그냥 참을 것 같다'는 응답이 많았으며, 층간소음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대화'로 해결하거나 '(경비실, 경찰 등) 우회적으로 해결'하는 등의 방법을 선택할 것 같다는 응답이 많은 편임

(Base: 층간소음 경험자, 단위: 중복 %)

(단위: 동의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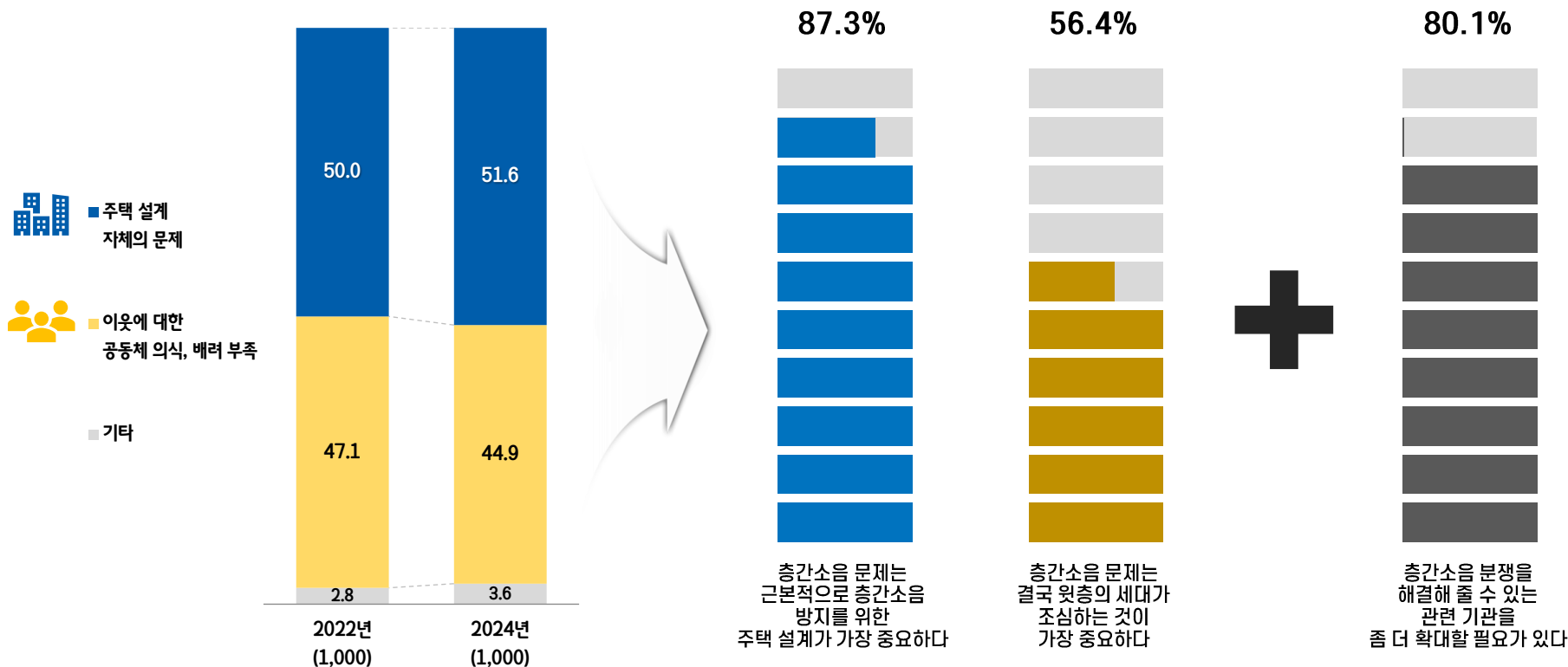


4. 층간소음 발생 관련 근본적인 해결책

- 층간소음 문제는 '주택 설계 문제'와 '공동체 의식 부족' 등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한다는 인식이 많음
- 이에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 근본적으로 주택 설계 측면에서의 '제도적 보완'과 이웃 주민에 대한 '배려 있는 행동'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았음
- 더불어 층간소음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향후 분쟁 해결 기관 확충에 대한 목소리도 높게 평가되고 있었음

(단위: %)

(N=1,000, 단위: 동의율 %)



03

Research Findings



1. 평소 '소음' 관련 민감도(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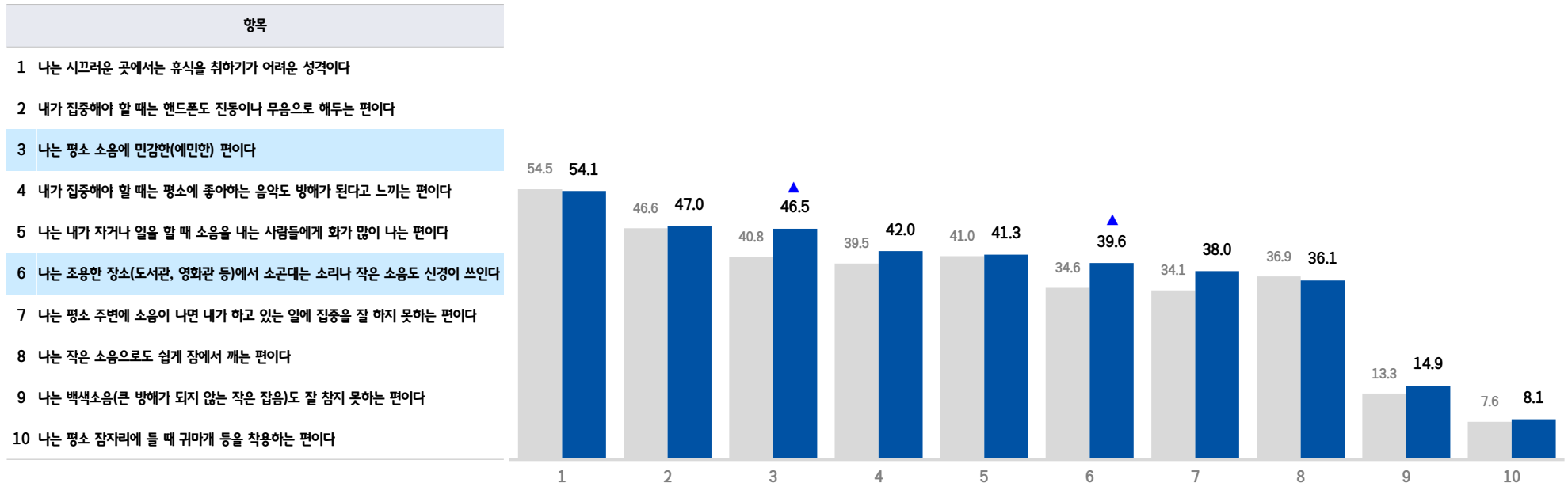
- 일상생활 중 소음에 대한 민감도는 높지 않은 편이나, '휴식'을 취하거나 '집중'이 필요한 상황에서의 소음 민감도는 높은 편임
- 한편 2022년 동일 조사 비교 시 소음 민감도(예민함)가 소폭 증가한 특징을 보임

항목별 TRK

(단위: Top2 %)

■ 2022년(N=1,000)

■ 2024년(N=1,000)



1. 평소 '소음' 관련 민감도(2/2)

- 상대적으로 20대 저연령층에서 '소음'에 대한 민감도가 높게 평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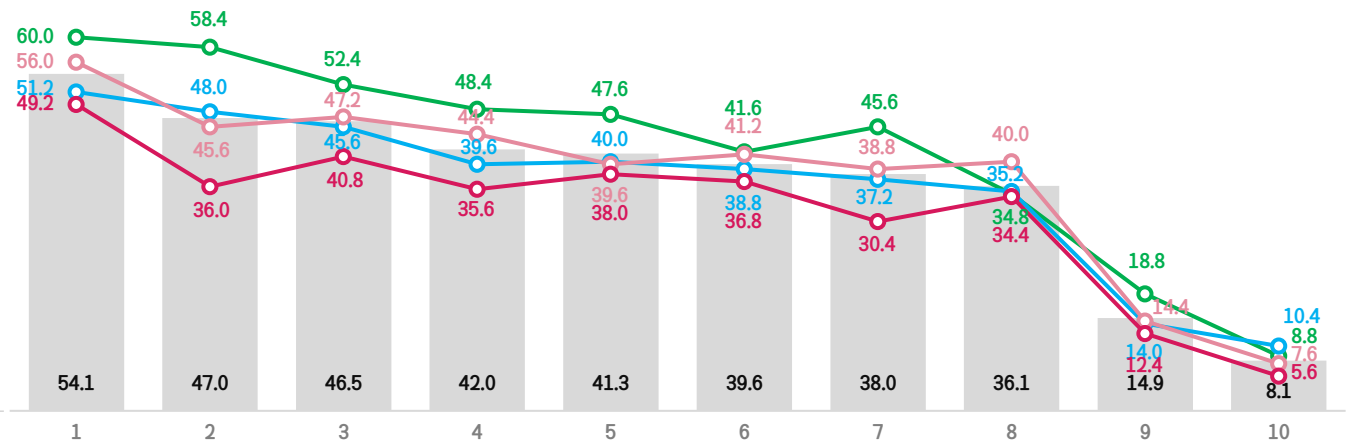
연령별

(단위: Top 2 %)

전체(N=1,000)
20대(N=250)
30대(N=250)
40대(N=250)
50대(N=250)

항목

- 1 나는 시끄러운 곳에서는 휴식을 취하기가 어려운 성격이다
- 2 내가 집중해야 할 때는 핸드폰도 진동이나 무음으로 해두는 편이다
- 3 나는 평소 소음에 민감한(예민한) 편이다
- 4 내가 집중해야 할 때는 평소에 좋아하는 음악도 방해가 된다고 느끼는 편이다
- 5 나는 내가 자거나 일을 할 때 소음을 내는 사람들에게 화가 많이 나는 편이다
- 6 나는 조용한 장소(도서관, 영화관 등)에서 소곤대는 소리나 작은 소음도 신경이 쓰인다
- 7 나는 평소 주변에 소음이 나면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집중을 잘 하지 못하는 편이다
- 8 나는 작은 소음으로도 쉽게 잠에서 깨는 편이다
- 9 나는 백색소음(큰 방해가 되지 않는 작은 잡음)도 잘 참지 못하는 편이다
- 10 나는 평소 잠자리에 들 때 귀마개 등을 착용하는 편이다



2. 이웃의 생활 패턴 및 소음 발생 관련 인식(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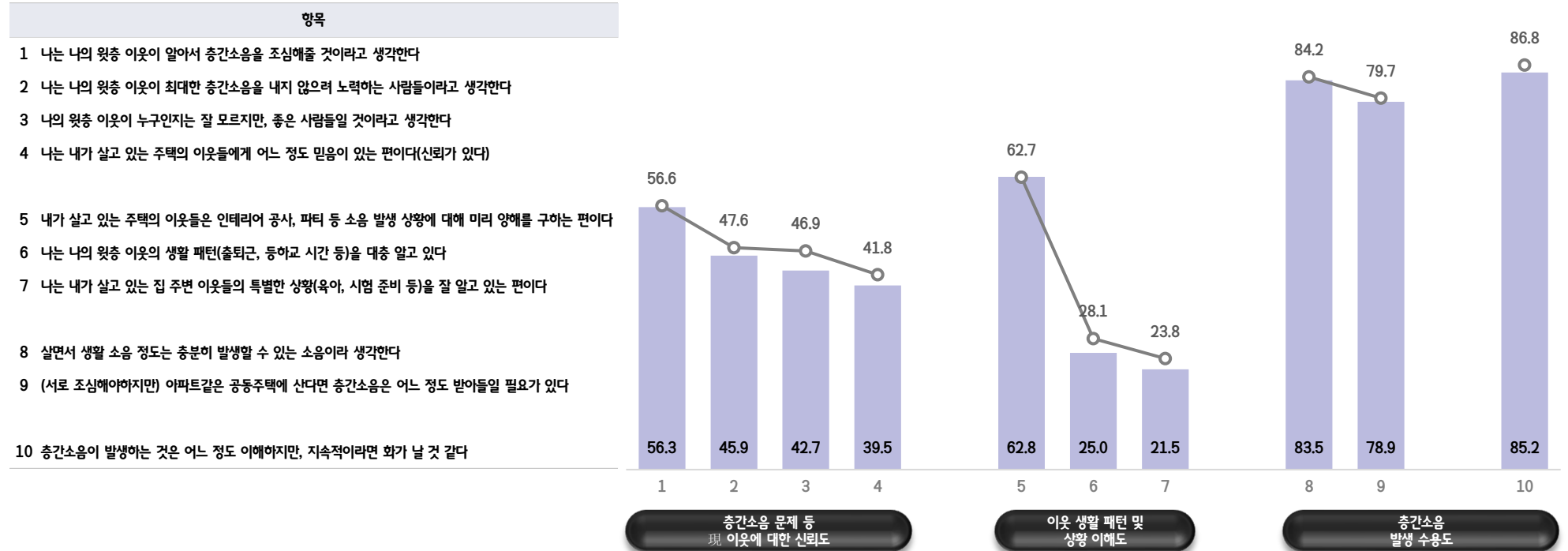
- 평소 이웃 주민에 대한 신뢰도는 높지 않은 수준이나, '소음' 발생 상황에서는 특별히 양해를 구하는 이웃 주민들이 많은 모습을 보임
- 전반적으로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다면 '생활소음'은 있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수용할 수 있다는 응답이 많은 편임
- 단,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소음에 대해서는 분노하게 될 것 같다는 응답이 높게 평가됨

항목별 TRK

(단위: 동의율 %)

— 2024년(N=1,000)

—○ 2022년(N=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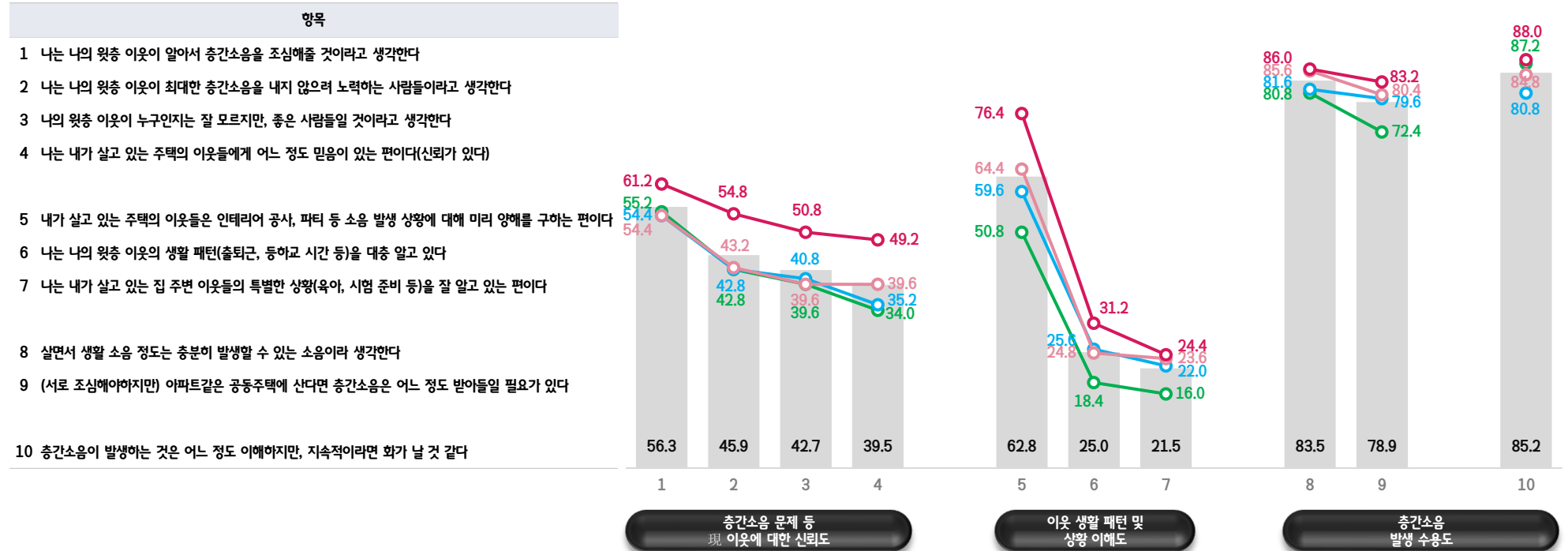


2. 이웃의 생활 패턴 및 소음 발생 관련 인식(2/3)

- 상대적으로 50대 고령층은 이웃 주민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편이며, '층간소음'에 대해 양해를 구하며 조심하는 이웃들이 많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연령별

(단위: 동의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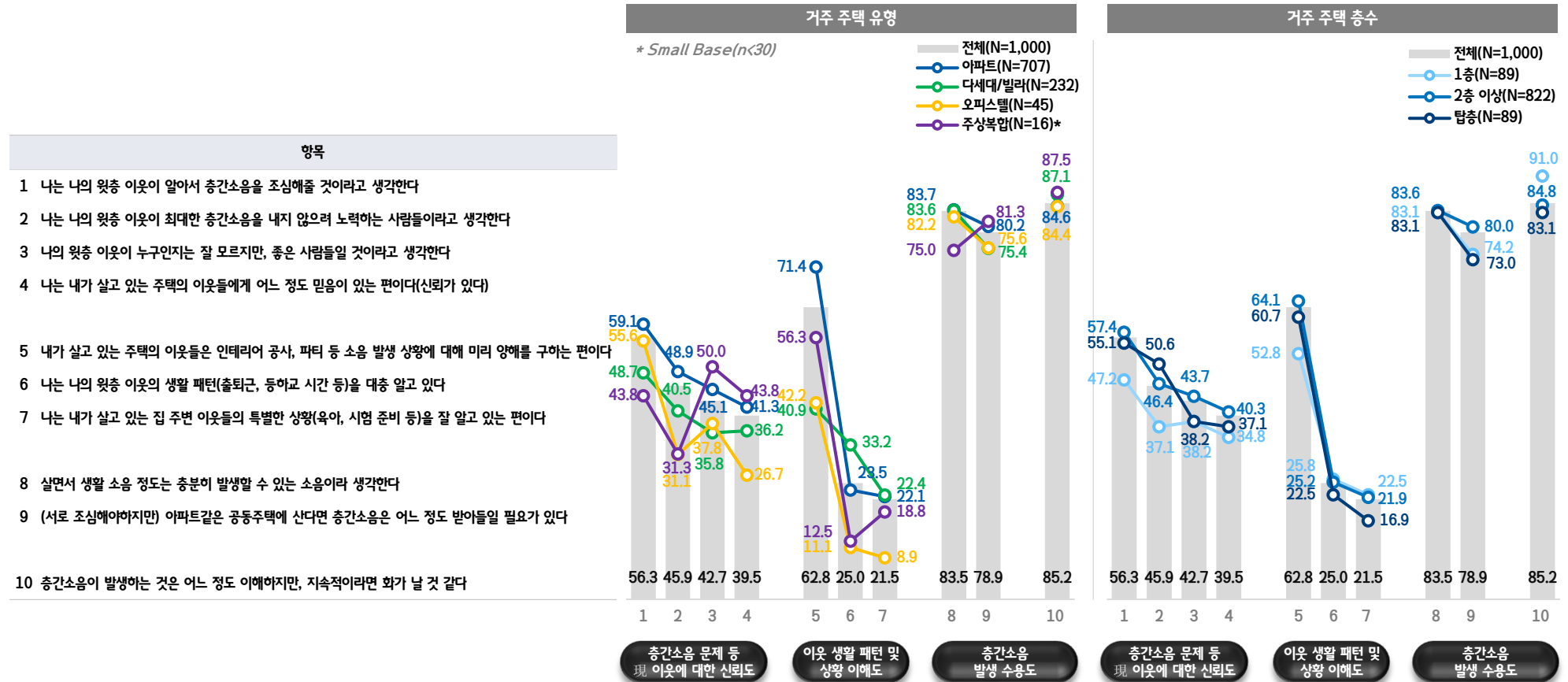


2. 이웃의 생활 패턴 및 소음 발생 관련 인식(3/3)

■ 아파트 거주자 및 '윗층'이 있는 저층 거주자의 경우 이웃 간에 '층간소음'을 조심하고 배려하는 분위기가 있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거주 주택 유형별

(단위: 동의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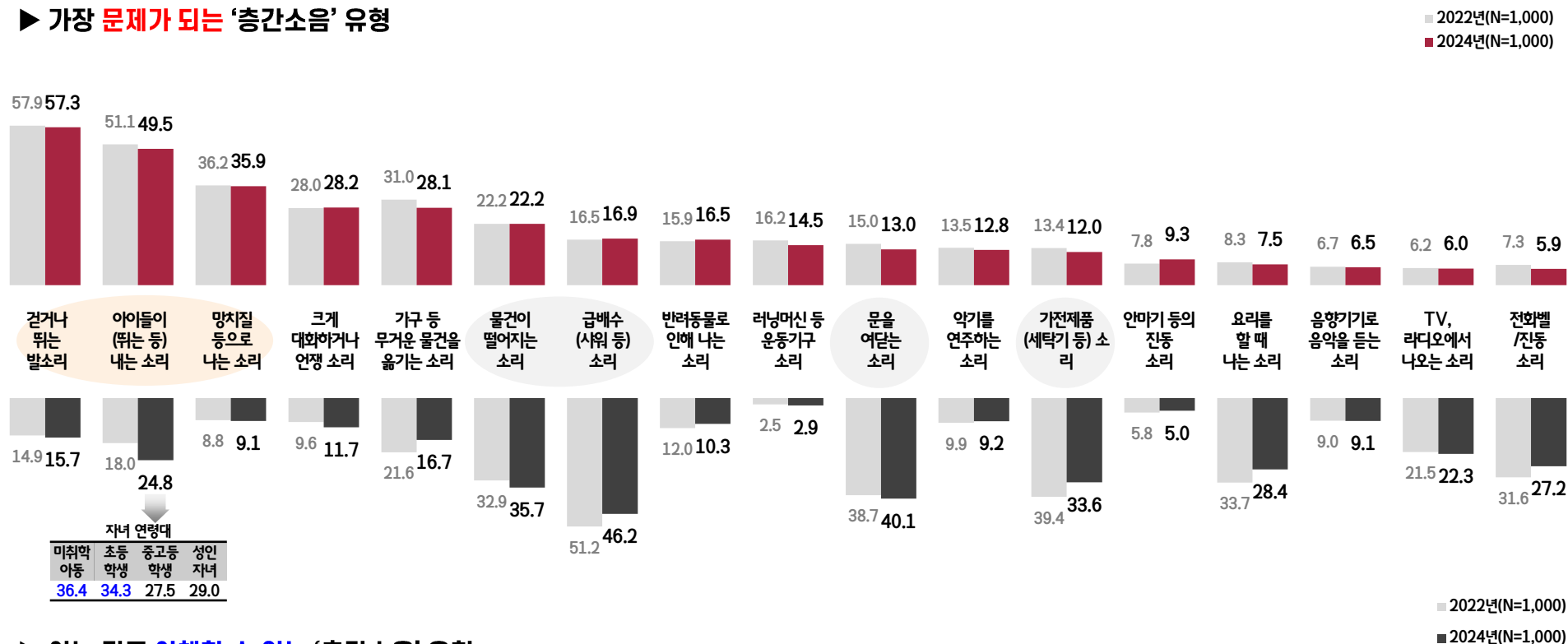


3. 층간소음 유형별 수용도

- 층간소음 중 [발소리], [아이들이 내는 소리], [망치질 등의 소리]는 문제가 된다는 응답이 높게 평가됨
- 반면 [급배수 소리], [문을 여닫는 소리], [물건이 떨어지는 소리], [가전제품 소리] 등의 생활소음은 이해할 수 있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 특히 초·중·고등 미만의 어린 자녀를 둔 부모의 경우 이웃 주택의 '아이들이 내는 소리'에 대한 이해도가 높게 평가되고 있어 고무적임

(단위: 중복 %)

▶ 가장 문제가 되는 '층간소음'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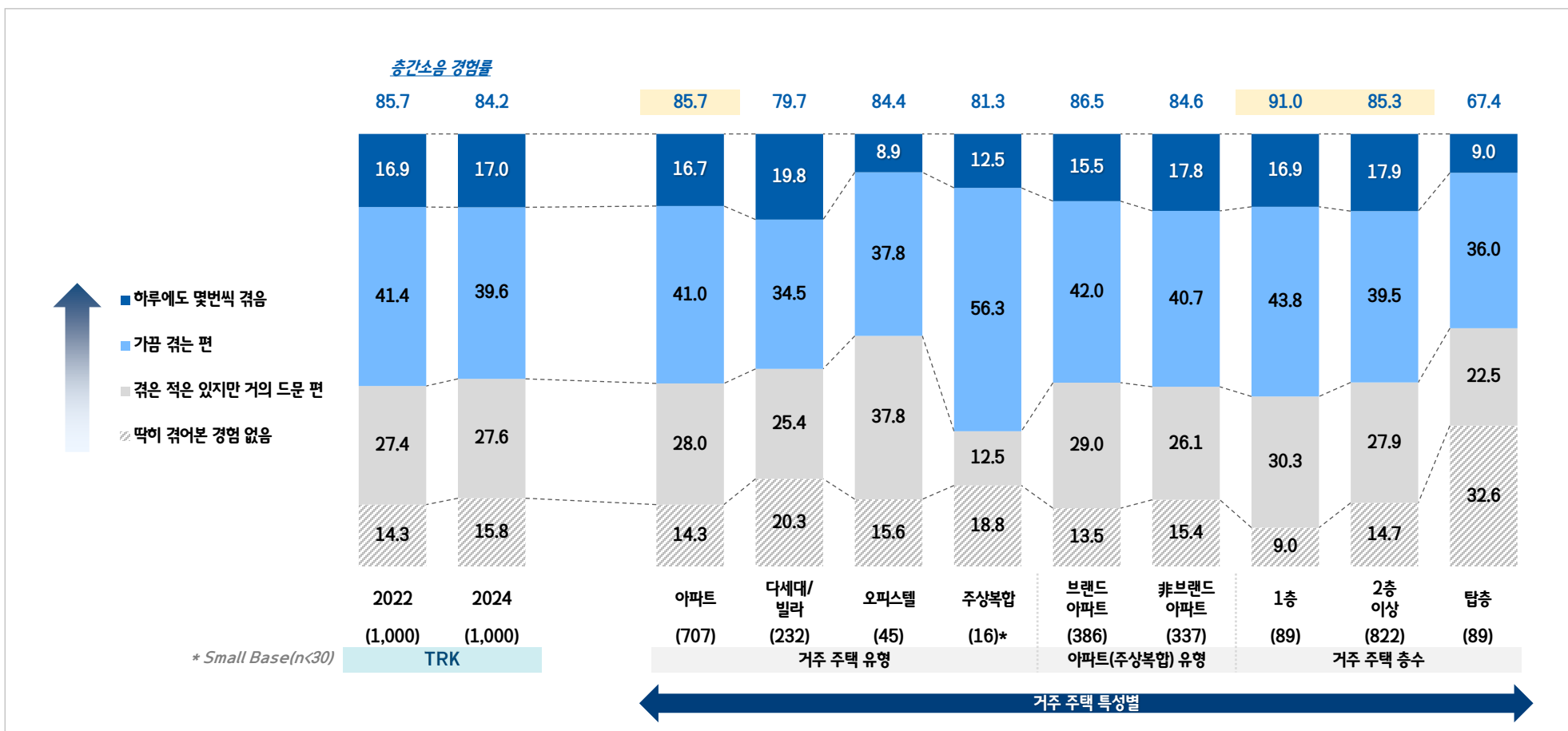


▶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층간소음' 유형

4. 現 거주 주택 층간소음 발생 빈도

- 現 거주 주택에서의 '층간소음' 경험률은 84.2%로 높은 수준이나, 실제 발생 빈도는 그다지 잦지 않은 편임
- 단, 아파트나 주상복합 거주자 및 저층 거주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층간소음을 겪는 빈도가 좀 더 높은 특징을 보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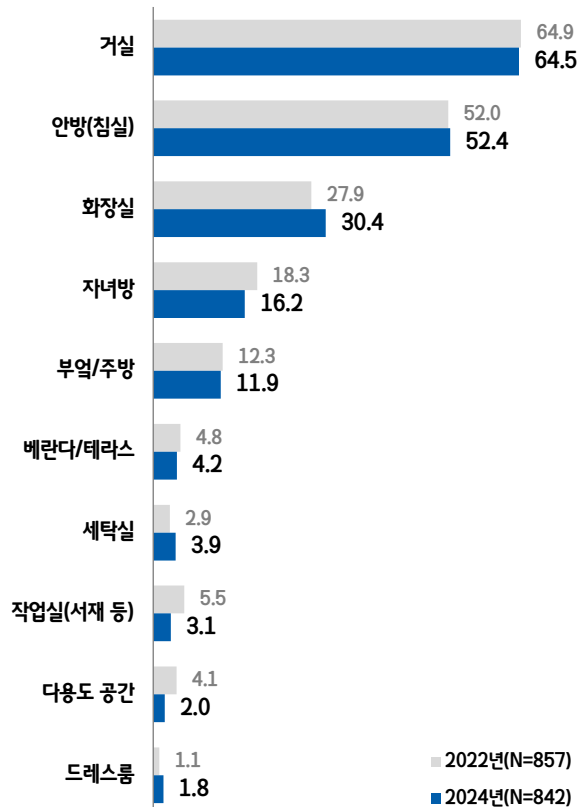


4-1. 現 거주 주택 층간소음 발생 상황

- 층간소음은 주로 [거실], [안방], [화장실] 등 주 생활 공간에서 자주 겪고 있다는 응답이 많은 편임
- 가장 자주 발생하는 시간대는 [저녁 6시 ~ 밤 12시] 사이의 늦은 오후 시간대가 많았음
- 층간소음이 가장 심각한 시간대는 [저녁 6시 ~ 9시] 사이로, 2022년 조사 대비 늦은 밤 보다는 저녁 시간대에 심하다는 응답이 이전 대비 증가한 특징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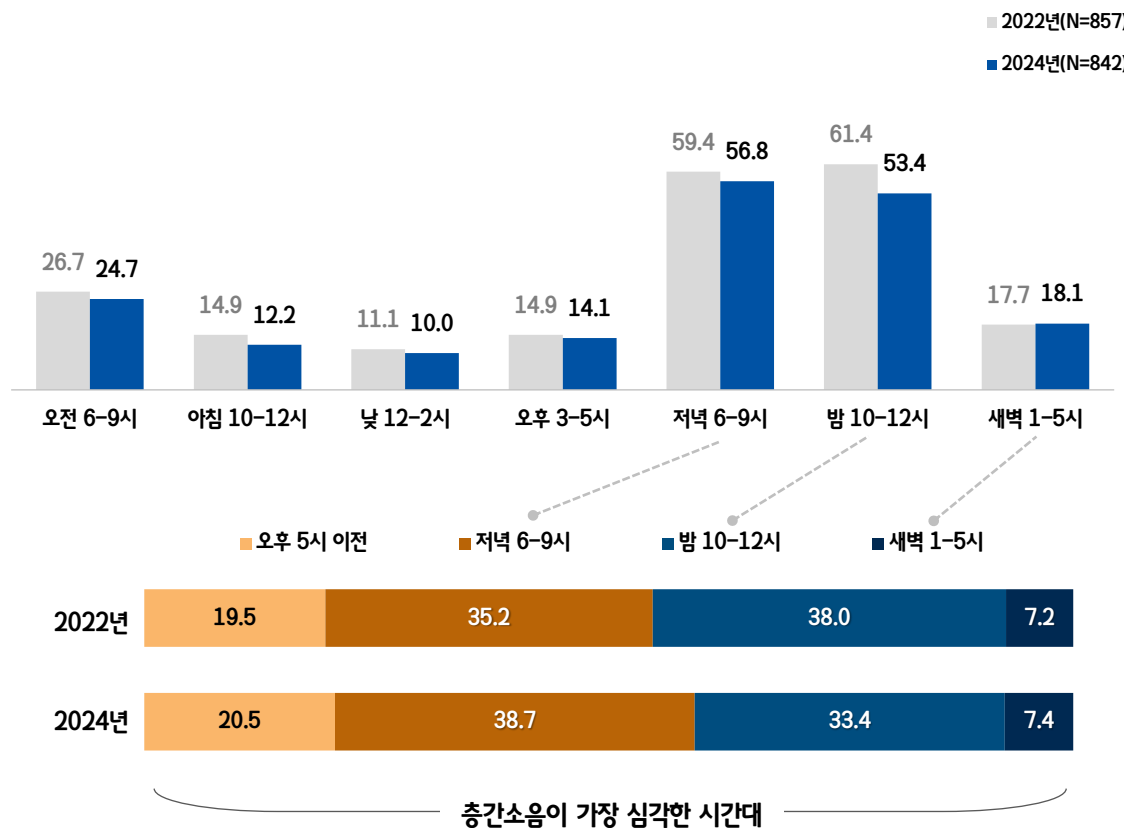
現 거주 주택 층간소음 발생 장소

(Base: 층간소음 경험자, 단위: 중복 %)



現 거주 주택 층간소음 발생 시간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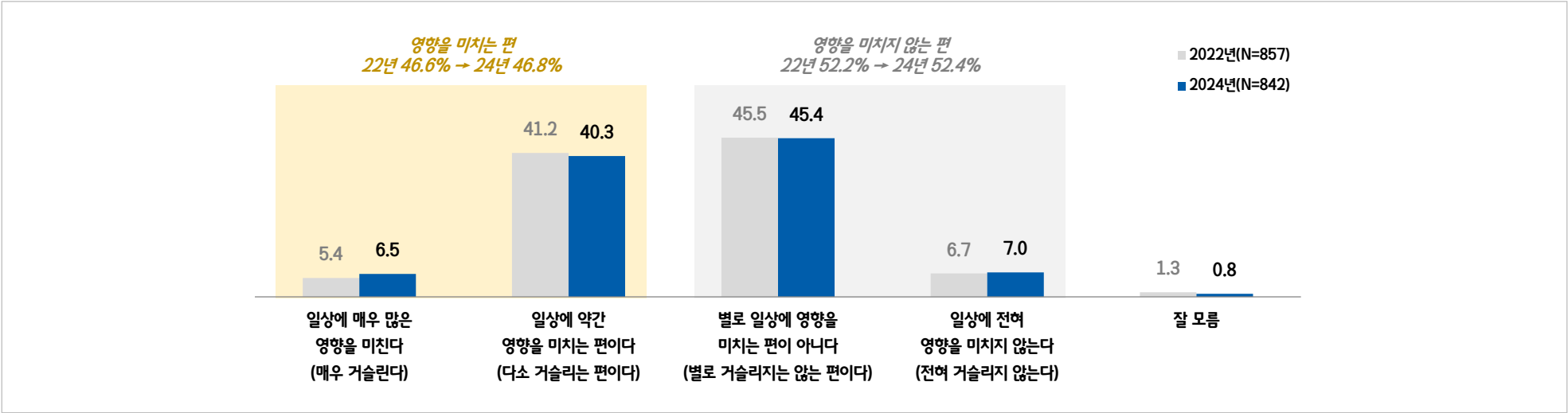
(Base: 층간소음 경험자, 단위: 중복 %)



4-2. 층간소음이 일상에 미치는 영향력

- 층간소음이 일상에 미치는 영향력은 지난 2022년 조사와 유사한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었음
- 다만, 층간소음 발생 빈도가 잦아수록 일상에 미치는 영향력이 높게 평가되고 있는 점은 눈여겨볼만한 대목임

(Base: 층간소음 경험자,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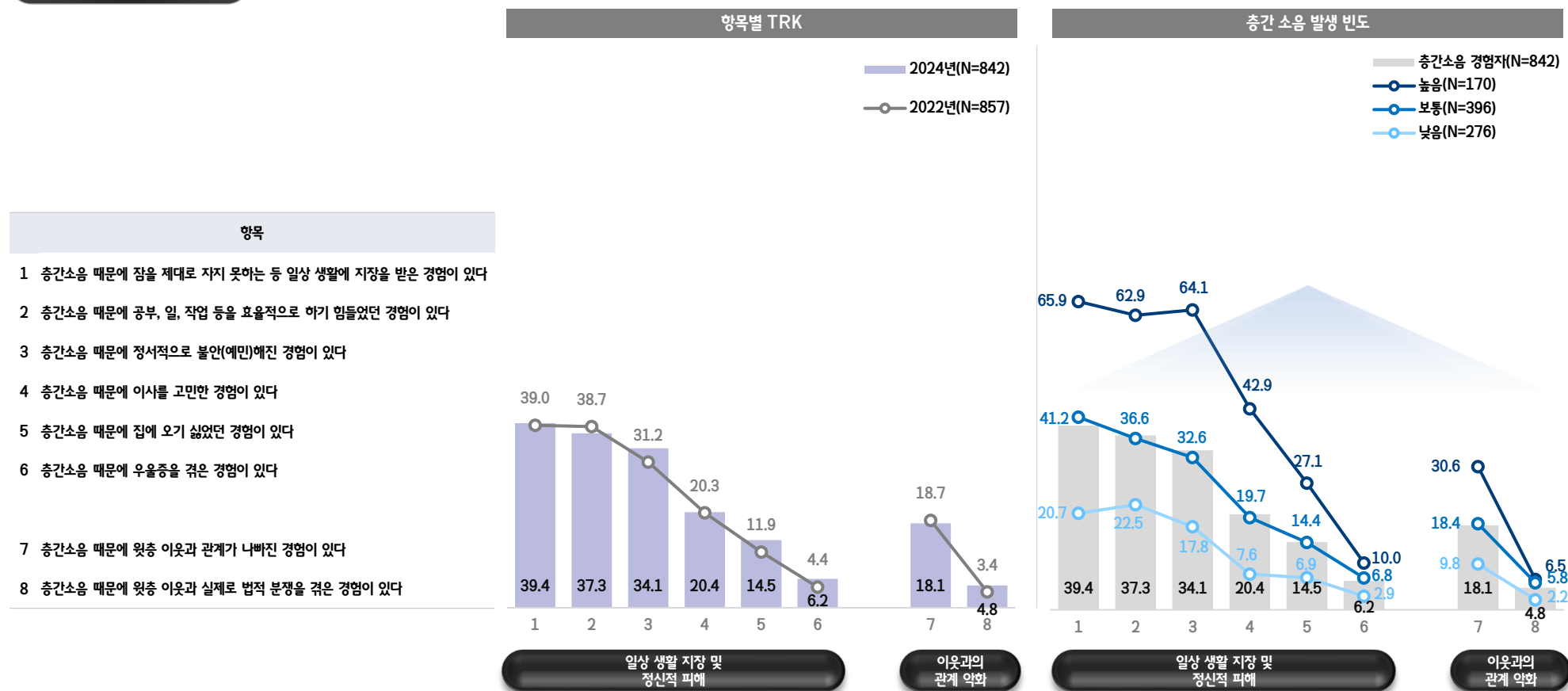
	전체	연령별				거주 주택 유형				거주 주택 층수			층간소음 발생 빈도		
		20대	30대	40대	50대	아파트	다세대/빌라	오피스텔	주상복합	1층	2층 이상	탑층	높음	보통	낮음
* Small Base(n<30)	(842)	(203)	(210)	(222)	(207)	(606)	(185)	(38)	(13)*	(81)	(701)	(60)	(170)	(396)	(276)
일상에 영향을 미치는 편 (거슬리는 편)	46.8	48.3	45.2	46.8	46.9	46.4	48.1	47.4	46.2	46.9	46.6	48.3	87.1	48.2	19.9
일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편 (거슬리지는 않는 편)	52.4	50.2	54.3	52.7	52.2	53.1	50.3	52.6	46.2	48.1	52.9	51.7	12.9	51.0	78.6
잘 모름	0.8	1.5	0.5	0.5	1.0	0.5	1.6	-	7.7	4.9	0.4	-	-	0.8	1.4

4-3. 층간소음 발생 시 상황 및 감정

- 층간소음 경험자 10명 중 4명 정도가 수면을 방해받는 등 '일상 생활'에 지장을 겪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함
- 특히 층간소음을 자주 겪는 응답자일수록 '우울증' 등의 정신적 피해나 '이웃과의 갈등'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은 점이 주목할만함

항목별

(Base: 층간소음 경험자, 단위: 동의율 %)



4-4. 층간소음 발생 시 대처 방법

- 층간소음이 발생했을 때 '항의', '신고' 등 적극적으로 대처한 비율은 매우 낮은 수준이었으며, 대부분 '이해'하거나 '무시'하며 넘어가는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음
- 단, 층간소음을 자주 겪고 있는 경우 비교적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비율이 높게 평가된 점이 특징적임

(Base: 층간소음 경험자, 단위: 중복 %)

		<div> <div>2022년(N=857)</div> <div>2024년(N=842)</div> </div>	연령별				거주 주택 유형				거주 주택 층수			층간소음 발생 빈도		
			20대	30대	40대	50대	아파트	다세대/빌라	오피스텔	주상복합	1층	2층 이상	탑층	높음	보통	낮음
			(203)	(210)	(222)	(207)	(606)	(185)	(38)	(13)*	(81)	(701)	(60)	(170)	(396)	(276)
대처하지 않음	어느 정도 이해하고 넘어갔다	74.3 71.1	68.0	71.0	70.3	75.4	71.9	66.5	78.9	76.9	70.4	70.6	78.3	53.5	72.2	80.4
	신경을 끄거나 무시했다	40.4 40.0	49.3	36.2	36.0	39.1	39.8	38.4	44.7	61.5	30.9	41.2	38.3	35.3	39.4	43.8
	화나지만 그냥 참았다	35.7 37.5	43.3	31.0	36.5	39.6	36.1	42.2	34.2	46.2	32.1	37.7	43.3	55.9	43.9	17.0
소극적 대처	TV, 오디오 소리를 키거나 높였다	9.6 9.5	10.3	9.0	10.8	7.7	8.7	12.4	5.3	15.4	11.1	9.6	6.7	16.5	9.8	4.7
	잠을 청했다	7.4 7.4	11.3	11.0	4.5	2.9	5.3	11.4	21.1	7.7	7.4	6.6	16.7	8.2	6.6	8.0
	(차라리) 외출을 하려고 했다	6.0 6.2	8.9	7.1	4.1	4.8	5.6	9.7	-	-	6.2	5.7	11.7	9.4	5.6	5.1
	귀마개 등 소음차단 용품을 사용했다	4.8 5.9	5.9	8.1	5.0	4.8	6.1	5.4	7.9	-	7.4	5.3	11.7	11.2	6.1	2.5
적극적 대처	경비실 등에 연락해 항의했다	15.1 13.5	12.8	10.5	15.8	15.0	17.0	5.4	2.6	-	6.2	15.1	5.0	25.3	12.6	7.6
	직접 찾아가서 대화를 (시도)했다	10.3 8.8	12.3	6.2	8.6	8.2	8.1	12.4	2.6	7.7	4.9	9.8	1.7	17.6	8.8	3.3
	메모/쪽지를 붙여놓고 왔다	5.0 5.1	8.4	4.3	2.3	5.8	5.3	5.4	2.6	-	6.2	5.1	3.3	10.0	4.3	3.3
	보복성 소음으로 대처했다	3.6 3.3	4.9	5.7	2.7	-	3.3	3.8	2.6	-	2.5	3.6	1.7	10.0	2.3	0.7
	해당 세대에 문자, 전화 등을 했다	5.6 2.6	3.4	2.4	2.3	2.4	3.1	1.1	2.6	-	6.2	2.4	-	5.9	3.0	-
	경찰에 신고했다	0.6 0.8	2.0	1.0	0.5	-	0.5	1.1	5.3	-	1.2	0.6	3.3	2.4	0.5	0.4
	층간소음 분쟁기구에 신고했다	0.6 0.7	1.0	-	1.4	0.5	1.0	-	-	-	1.2	0.7	-	2.4	0.5	-

5. 층간소음 발생 방지 노력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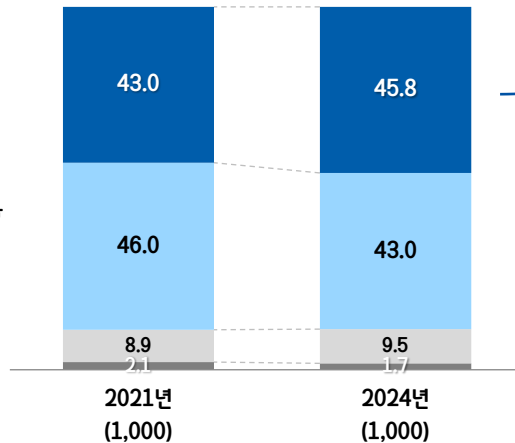
- 평소 일상에서 층간소음 발생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남
- 특히 50대, 아파트 거주자 및 '아랫층'이 있는 고층 거주자를 중심으로 '최대한 노력 중'이라는 응답이 많았음
-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 평소 [뛰거나 쿵쿵거리지 않기], [늦은 시간대 가전(세탁기, TV 등) 사용 자제] 등을 하고 있다는 응답이 많은 편임

층간소음 발생 방지 노력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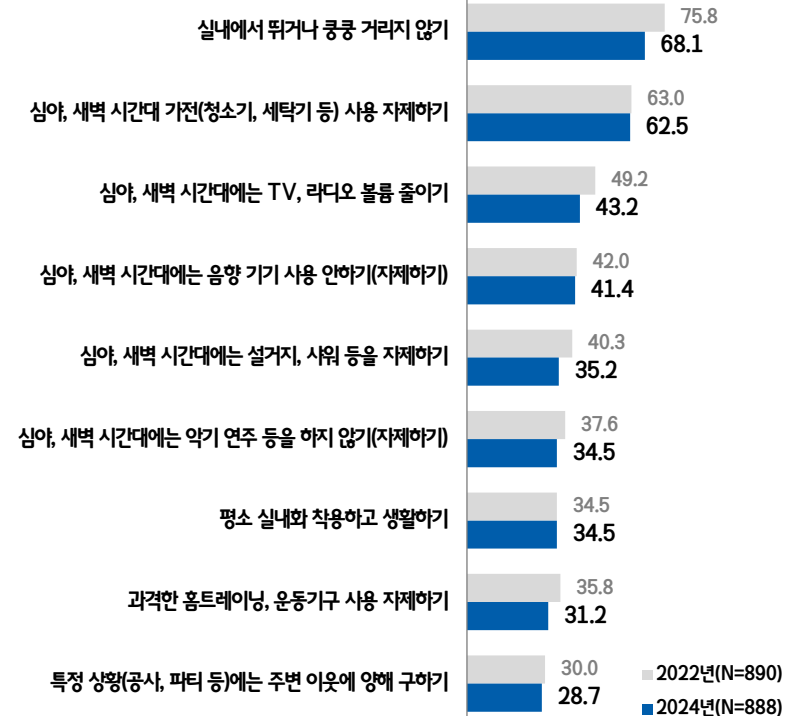
(단위: %)

(주요 응답값 제시, 단위: 중복 %)

- 최대한 노력하는 편
- 어느 정도 노력하는 편
- 딱히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음
- 잘 모름/응답 거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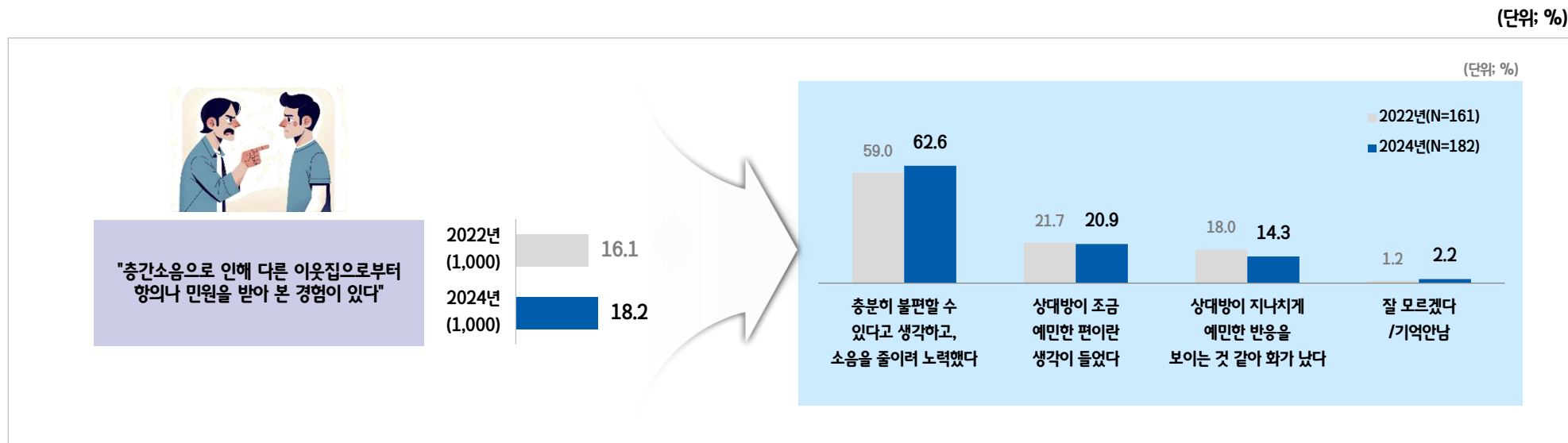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해 하고 있는 방법



	전체 (1,000)	연령별				거주 주택 유형				거주 주택 층수		
		20대 (250)	30대 (250)	40대 (250)	50대 (250)	아파트 (707)	다세대/ 빌라 (232)	오피스텔 (45)	주상복합 (16)*	1층 (89)	2층 이상 (822)	탑층 (89)
* Small Base(n<30)												
최대한 노력하는 편	45.8	40.8	45.6	45.2	51.6	47.0	45.7	28.9	43.8	36.0	45.7	56.2
어느 정도 노력 하는 편	43.0	41.2	44.4	46.8	39.6	42.1	42.2	57.8	50.0	32.6	45.0	34.8
딱히 특별한 노력 없음	9.5	13.6	9.2	7.2	8.0	9.1	11.2	11.1	-	28.1	8.0	4.5

6. 층간소음으로 인한 항의/민원을 받은 경험

- 우리 집의 층간소음으로 이웃집에게 '항의/민원'을 받아 본 경험은 18.2%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음
- 단, 초등학교 자녀가 있는 부모, 아파트 거주자, 고층 주택 거주자는 '항의/민원' 경험이 많은 특징을 보임
- 또한 평소 층간소음을 자주 겪고 있는 응답자일수록 '항의/민원'을 받은 경험도 많은 것으로 보아, 건물 자체의 방음 문제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었음



	전체 (1,000)	연령별				자녀 연령대				거주 주택 유형				거주 주택 층수			층간소음 발생 빈도			
		20대 (250)	30대 (250)	40대 (250)	50대 (250)	미취학 아동 (99)	초등학생 (108)	중고등학생 (109)	성인 자녀 (176)	아파트 (707)	다세대/빌라 (232)	오피스텔 (45)	주상복합 (16)*	1층 (89)	2층 이상 (822)	탑층 (89)	높음 (170)	보통 (396)	낮음 (276)	없음 (158)
* Small Base(n<30)																				
경험 있음	18.2	14.8	14.4	26.0	17.6	36.4	43.5	33.9	18.8	21.4	11.2	8.9	6.3	16.9	17.8	23.6	22.4	18.4	18.8	12.0
경험 없음	81.8	85.2	85.6	74.0	82.4	63.6	56.5	66.1	81.3	78.6	88.8	91.1	93.8	83.1	82.2	76.4	77.6	81.6	81.2	88.0

6-1. 층간소음으로 인한 항의/민원을 받았을 때 상황 및 감정

- 층간소음으로 인한 '항의/민원'을 받은 응답자의 30% 정도가 '정서적 불안감'을 느꼈고, '이웃과의 관계가 악화' 됐다고 응답함
- 대체로 일상에 큰 피해를 입거나, 정신적 고통을 느꼈다는 비율은 낮게 평가되고 있었음

항목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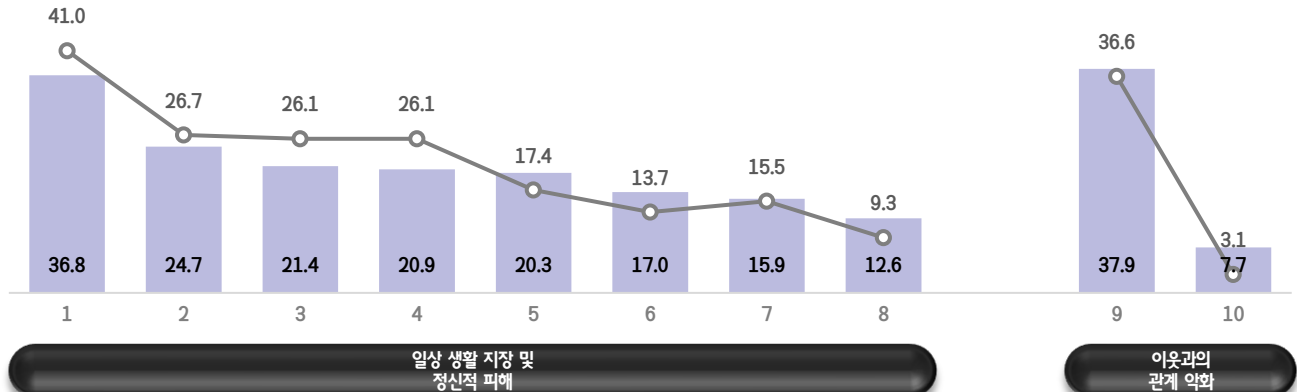
(Base: 층간소음으로 인한 항의/민원 경험자, 단위: 동의율 %)

2024년(N=182)

2022년(N=1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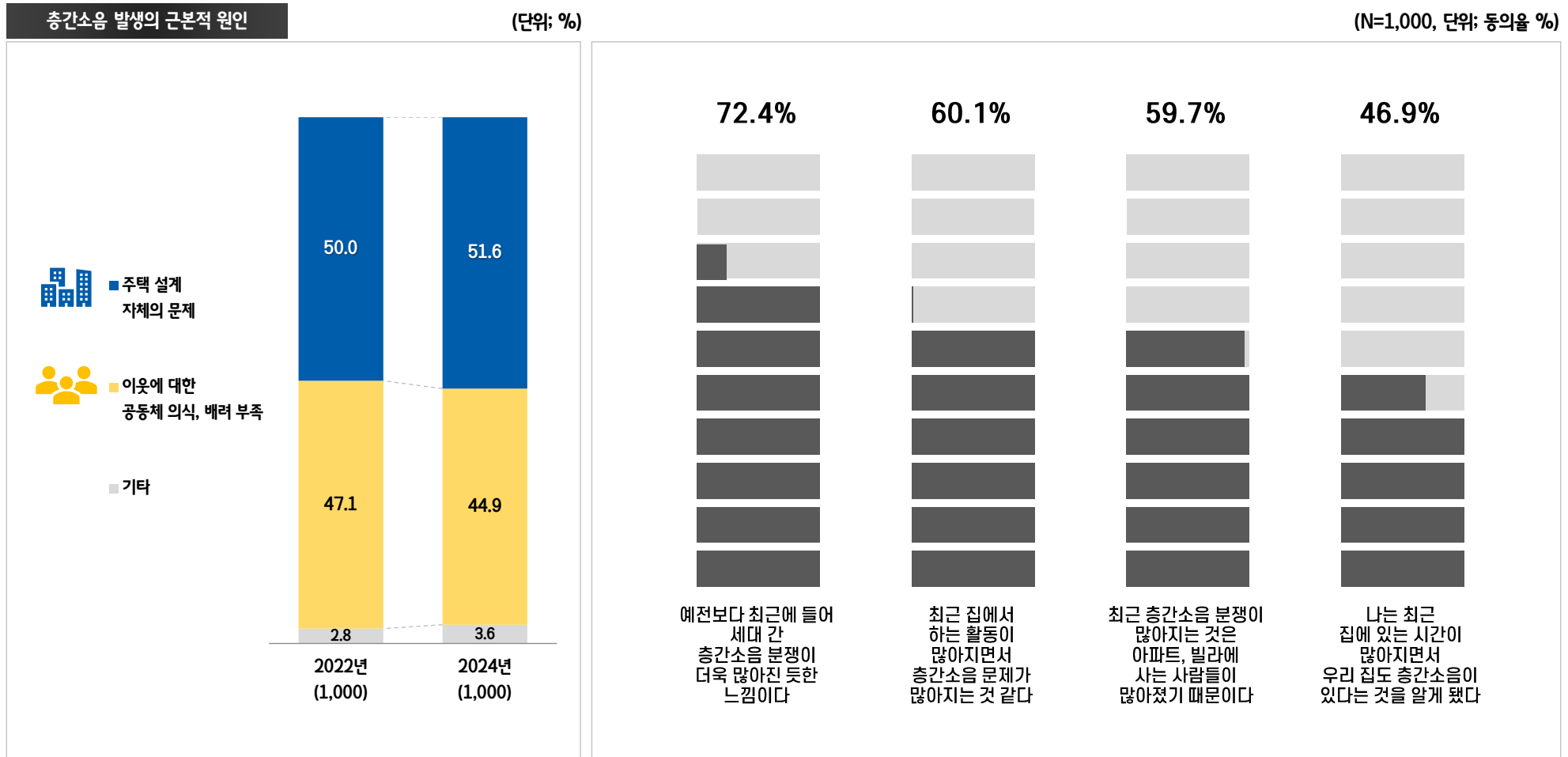
항목

- 1 층간소음 민원(항의)을 받고 정서적으로 불안(예민)해진 경험이 있다
- 2 층간소음 민원(항의)으로 집으로 손님들을 잘 초대하지 않게 된 경험이 있다
- 3 층간소음 민원(항의)으로 이사를 고민한 경험이 있다
- 4 층간소음 민원(항의)을 받고 가사일/작업 등을 효율적으로 하기 힘들었던 경험이 있다
- 5 층간소음 민원(항의)으로 가족모임도 잘 하지 못하게 된 경험이 있다
- 6 층간소음 민원(항의)으로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는 등 일상 생활에 지장을 받은 경험이 있다
- 7 층간소음 민원(항의)을 받고 집에 오기 싫었던 경험이 있다
- 8 층간소음 민원(항의)으로 우울증을 겪은 경험이 있다
- 9 층간소음 민원(항의)으로 아래층 이웃과 관계가 나빠진 경험이 있다
- 10 층간소음 민원(항의)으로 아래층 이웃과 실제로 법적 분쟁을 겪은 경험이 있다



7. 층간소음 발생의 근본적 원인

- 층간소음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은 '주택 설계' 문제와 '공동체 의식/배려 부족' 문제가 유사한 비율로 평가되고 있었음
- 전통적인 단층 주택 형태에서 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 거주가 많아지며 층간소음이 많아질 수 밖에 없는 환경으로, 이에 '집에서 보내는 시간' 등이 늘어나면서 층간소음 문제를 겪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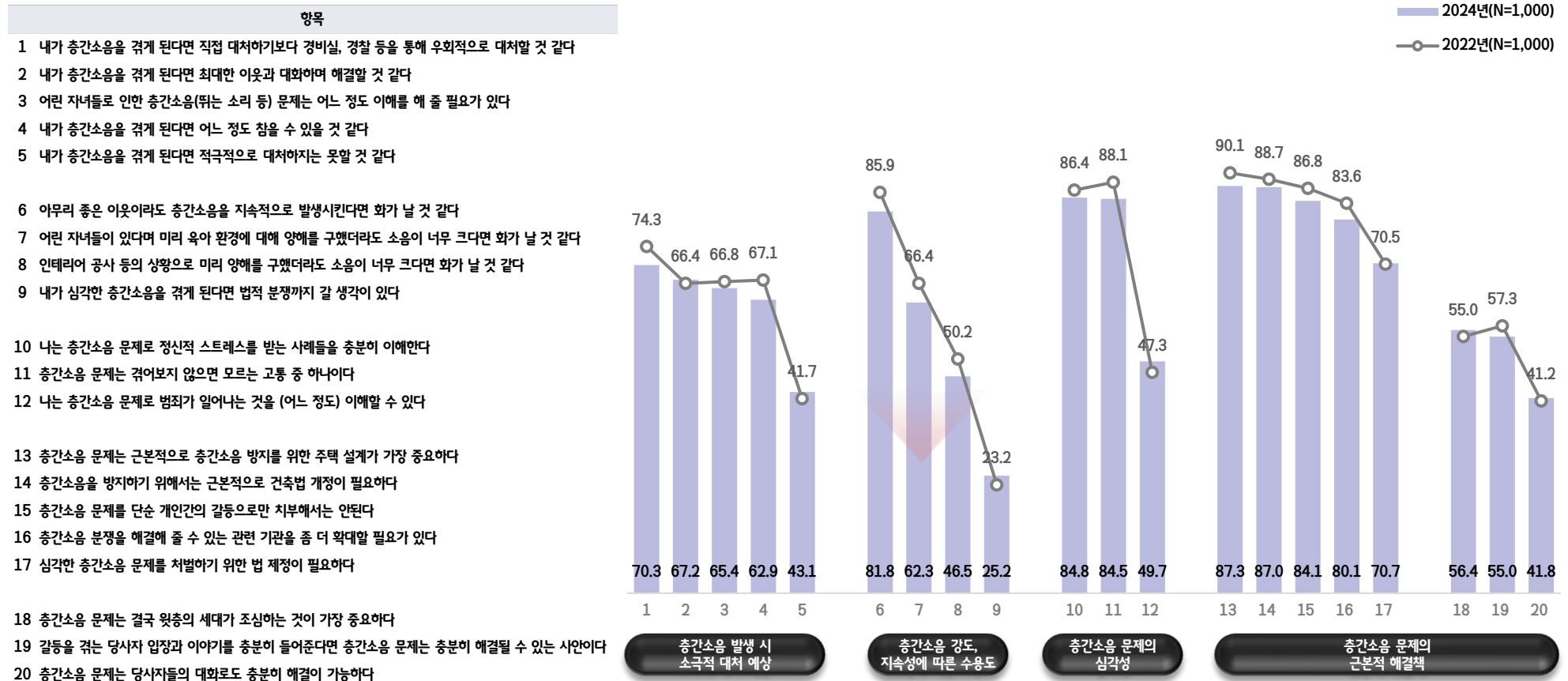


8. 층간소음 문제 심각성 및 해결 방안 관련 인식(1/4)

- 층간소음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최대한 이웃과의 '갈등'은 피하고, '대화'나 '(경비실, 경찰 등) 우회적인 대처' 등으로 대처할 것 같다는 응답이 많았음
- 다만 지속적이고 강도 높은 층간소음은 '분노', '정신적 스트레스'를 줄 수 있는 만큼, 심각성에 대한 공감도도 높게 평가됨
- 이에 층간소음 문제는 단순 개인 간의 갈등으로 치부하며 당사자 간의 해결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근본적인 '주택 설계' 개선, '건축법 개정', '분쟁해결 제도 강화' 등 제도적 마련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항목별 TRK

(단위: 동의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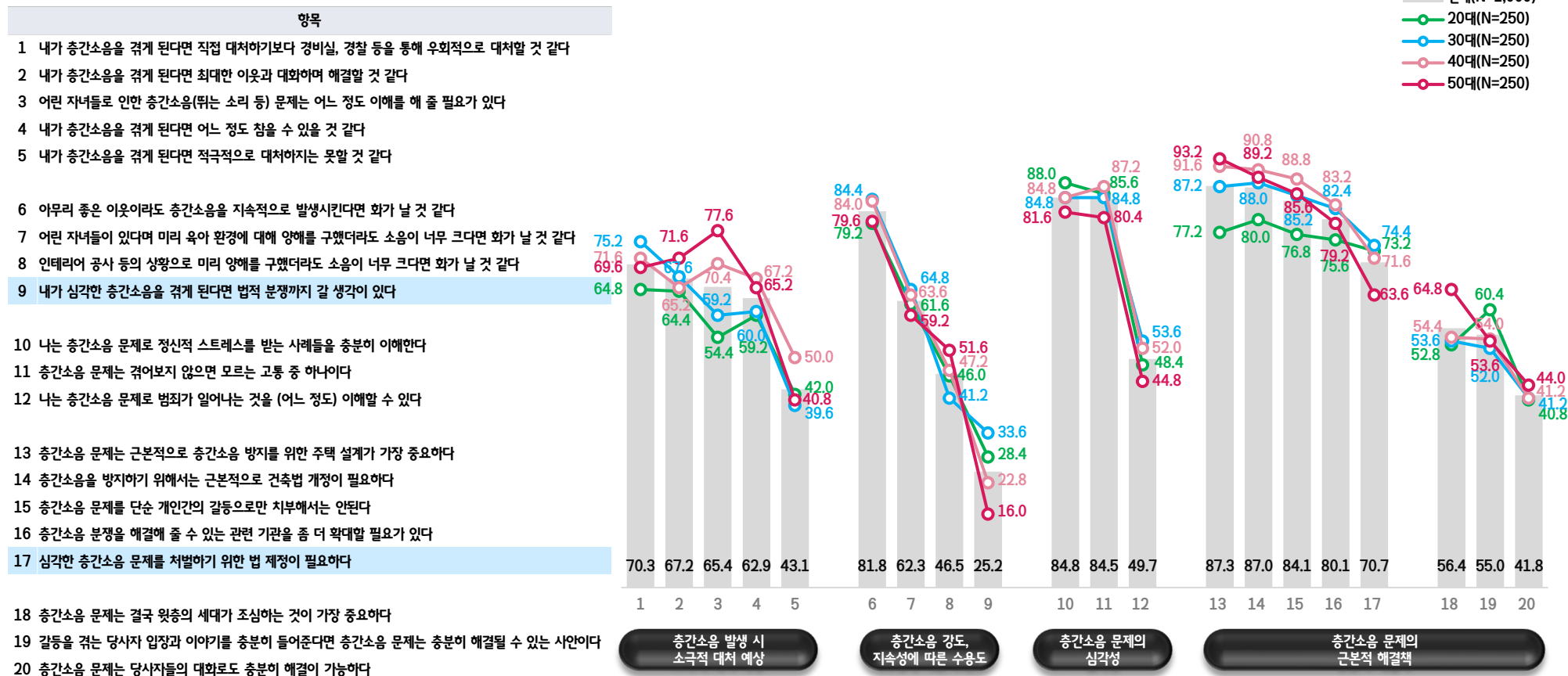


8. 층간소음 문제 심각성 및 해결 방안 관련 인식(2/4)

- 상대적으로 연령층이 높을수록 (아이들로 인한 소리 등) 층간소음을 이해할 수 있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 한편 2030 저연령층의 경우 심각한 층간소음 문제라면 '법적 분쟁' 까지 갈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으며, 관련 문제 처벌을 위한 법 제정 필요성도 높게 평가함

연령별

(단위: 동의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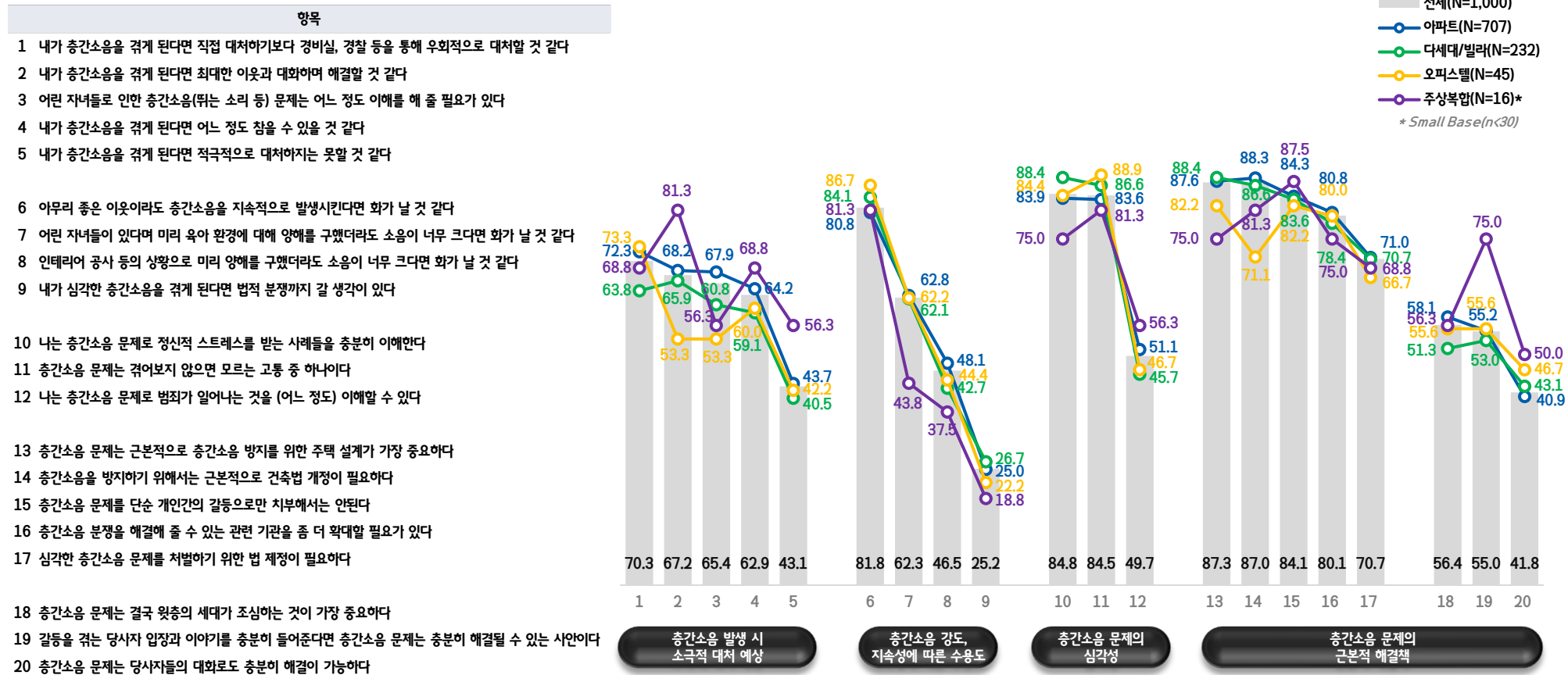


8. 층간소음 문제 심각성 및 해결 방안 관련 인식(3/4)

- 아파트 거주자의 경우 '어린 자녀'로 인한 층간소음은 어느 정도 '이해'해주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 한편 거주 주택 유형에 관계없이, 층간소음 발생 방지를 위한 '주택 설계' 문제 필요성에 대한 공감도가 높게 나타난 점이 주목할만한 결과임

거주 주택 유형별

(단위: 동의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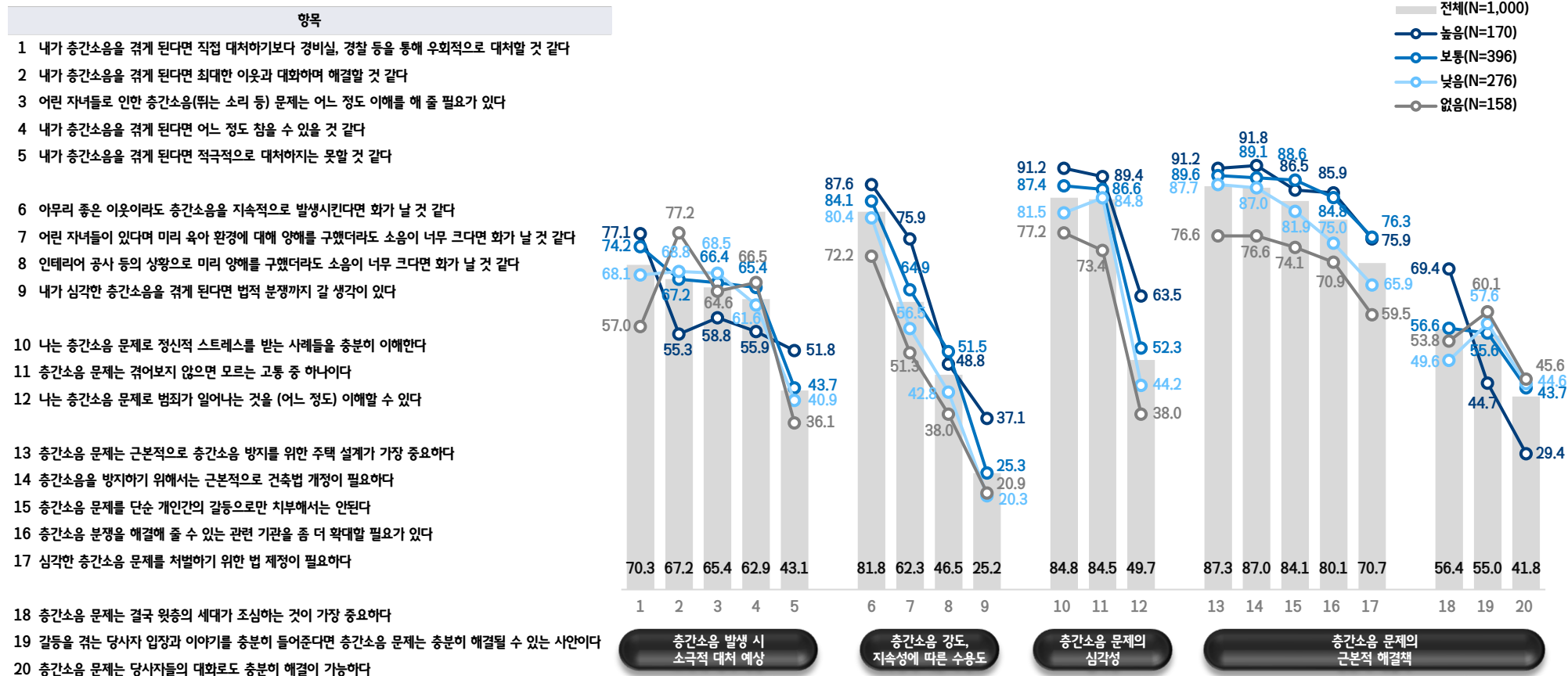


8. 층간소음 문제 심각성 및 해결 방안 관련 인식(4/4)

- 평소 층간소음 발생 빈도가 높을수록 층간소음을 겪었을 때 이해하고 넘어가기 보다는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 같다는 응답이 많음
- 특히 층간소음을 자주 겪고 있을수록 층간소음에 대한 '분노'나 '정신적 스트레스'도 많이 겪고 있는 편으로,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은 편임

층간 소음 경험별

(단위: 동의율 %)



Contact us

윤덕환 이 사 dhyoon@embrain.com | +82-2-3406-3967

채선애 부서장 콘텐츠사업부
sonae2772@embrain.com | +82-2-3406-3968

이진아 대 리 콘텐츠사업부
nana122@embrain.com | +82-2-3406-3918

최다솔 사 원 콘텐츠사업부
dassoling@embrain.com | +82-2-3406-3837

